



Cinema Rex, Oran, Algeria
1962년 알제리가 독립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증언을 종종 접했다.
그중 많은 사람이 극장에 대한
영광을 회고하곤 했다. 지금은 굳게
닫힌 이 극장을 활성화하면서 그들을
생각했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증거덤으로 반씩였을 눈동자들을.



Mondal House, Chandannagar, India, circa 1741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오랜 저택의 지붕에 올랐다. 사진을 찍는 순간에 태양이 떠오르고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축축한 안개에 벤 향신료 냄새가 아직도 기억난다.

Villa, Kep, Cambodia
케의 오래된 빌라를 발견한 건 캄보디아 도착 이를 때였다. 종일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운명의 여신이 내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할 즈음, 이 도발적인 색감의 멋진 빌라와 마주쳤다.



**Hotel de la marine,
Diego Suarez,
Madagascar, circa 1920**
이 호텔은 금광을 발굴한
사람이 세웠다. 지금은
불행히도 태풍에 휩쓸려
손상된 모습이다. 그러나
독특한 건축양식은 그대로
남아 마다가스카르 해안
마을에 특유의 감성을
불어넣는다.





Slaughterhouse, Casablanca, Morocco, 1922

도축장으로 쓰던 카사블랑카의 이 공간에 지금은 말 한 마리가 암동이에 담긴 물을 태평하게 마시고 있다니, 역사적 아이러니다. 버려진 건물에 가장 먼저 생동하는 것은 대개 자연 그 자체다. 여기에 동물의 왕국이 펼쳐진 것처럼.



Chruch, Vietnam

숲 속에 버려진 채 잊힌 이 교회는 실안개 사이에서 피어난 듯했다. 촬영 당시 나는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 약 20분 후 땅거미가 내려앉으며 안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Turret, Dakar, Senegal, circa 1910

이 낡은 군사기지는 본래 세네갈 고레 섬 방어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지금은 예술가들이 공간을 점령하고 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무리 중 한 명이 향후에 이 공간을 티룸으로 개조할 거라고 얘기했다.

First building of reclusion, entry, Penal colony, Guyana, 1897

남아메리카 해안에 출로 떨어진 이 유형지까지 오는 여정은 길고도 길었다. 죄수들을

감금하는 공간 주위를 둘러싼 밝은 헛빛과 야자수가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Trial court, Chandannagar, India, 1760

인도를 방문했을 때는 몬순 직전이었다. 이미 기운이 상당히 오르고 습한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적당히 시끄럽고 생기 있는 마을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나는 18세기 법원의 적막함을 미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프랑스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여기에 터를 잡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Private house, Mahajanga, Madagascar

미처장가의 거리를 걷다 만난 이 건물 주인에게 구경을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도움을 받아 사람이 살지 않는 1층과 2층을 둘러볼 수 있었다. 문지방에서 서서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녀에게 자리에 엎춰달라고 부탁한 뒤 사진을 찍었다.



토마 조리옹
Thomas Jorion

2012년 패션 매거진 <Another>와의 인터뷰에서 '촬영 현장에 생명체가 없는 것을 선호한다'고

언급한 걸 봤다. 실제로도 이전 작품 전체를 통하여 인물이 등장한 사진은 두 장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작품들에서는 물 마시는 말도 등장하고, 사람이 왕래하는 거리를 찍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어디서 기인하나?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 없이 건축물만 찍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진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번 작업 대상인 건축물들은 실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곳을 촬영하려면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방법을 익혀야 했다. '무릇 사진에는 생명체가 없어야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리즈는 건물 안에서 어슬렁거리는 주인장과 함께 촬영을 진행해야 했다. 한편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기 건축을 찍으려면 어떤 경우에는 거리 전체를 담는 사진도 필요하다고 느꼈고, 모두 비커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사진에 사람들을 넣는 수밖에 없었다. 지나고 보니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음번에는 아예 인물 사진 작업을 해볼까 고려 중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폐허의 미학'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어떤 경향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이 접근하는 차원은 다를 거다.

당신이 생각하는 폐허의 미학을

정리한다면? 금방 희미해지거나 증발해버리는 아름다움보다는 그 자리에 새로운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에 전율하고 한다. 물건이나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모습을 바꾸고, 그걸 보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다. 일본의 미학 개념인 '와비사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시간의 잠식 안에서 존재하는

아름다움, 손상된 채로 오랜 세월 살아온 물체에 관한 개념이다. 시장에 내놓은 상품이나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완벽한 물체보다 이런 불완전한 것들에서 깊이를 느낀다. 하지만 요즘에는 장소와 관련한 역사적 맥락에 좀 더 관심이 간다고 덧붙이고 싶다. 폐허가 주는 단순한 미적 심상만으로는 뭔가 공허하다는 느낌이 있다.

폐허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 하면, 웬지 그곳을 파괴하거나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상상을 하는

도착적인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폐허'가 당신에게 불러일으키는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장면이 있다면?

아마 열두 살 무렵이었을 거다. 학교에서 어울려 다니는 무리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학교를 빠져나와 거리에 버려진 차고에서 짓궂은 장난을 하며 놀았다.

담배를 피우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깊낄대거나. 우리는 점점 도시가 숨겨놓은 어두운 장소들에 깊숙이 밤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한번은 정학을 당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아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버려진 집이나 하수구, 창고들을 찾아

헤맸다. 버려진 장소에 있으면 엄청나게 자유롭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른 모든 것은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고, 우리는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도시를 들쑤셔댔다. 새로운 곳을 찾고, 나름의 환상을 만들어 그것에 몰두하고, 시간이 숨겨둔 보물들을 찾아내곤 했다. 몇 번이고 같은 장소를 다시 방문해 세월에 따라 시물이 바뀌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때는 그게 낙이었다.

4X5 대형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다고 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일본 에보니사의 대형 카메라와 네거티브 필름을 사용한다. 촬영하는 장소에 맞춰 카메라를 조작하는 맛이 있다. 애지중지하는 장난감을 다룰 때의 기분이랄까? 아마 증기기관차를 몰던 기관사들이 열차 엔진에 대해 가졌던 신뢰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한다. 그들은 기계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시중에 나온 다른 카메라도 많긴 한데,

에보니 대형 카메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기술적인 변수 때문에 까다롭게 느껴지는 데도 굳이 네거티브 필름을 사용하는 건, 사람처럼 불완전한 구석이 있어서 애착이 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일렌시오(Silencio)> 일본판과 중국판이 출간됐다. 일본과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내 사진집을 사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좀처럼 기회가 없었다. 일본에서는 출간 두 달 만에 5000부가 팔렸던데. 아마 동아시아에서는 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곳들을 담았기 때문 아닐까?

독자나 비평가에게서 받은 코멘트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사람들이 종종 내 사진 속 세계와 자신의 옛 기억들이 공명한다고 하더라. 굉장히 영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현상이다. 때로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니를 감동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때마다 놀란다. 나는 말이나 글보다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익숙하니까.

다음 폐허 연작으로 관심을 갖는 장소나 주제는? 여러 경로를 놓고 고민 중이다.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는 얼마간 새로운 기회에 몸을 맡기기도 해야 하지 않나. 아시아 지역도 좋아한다. 풍광이 아름답고 친절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하지만 프랑스를 촬영한 적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촬영한 곳은 '잊힌 철길(Forgotten Lines)' 시리즈 중 파리 구석구석에 펼쳐진 '프티 생튀르(Petite Ceinture)'라는 버려진 철로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매일 지나다니던 곳에서 작업을 한다는 게 나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일상의 공간을 한발 떨어져서 볼 줄 아는 사진가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